

## 1) 邯鄲之夢 원문

● 邯鄲之夢 (= 老生之夢, 一炊之夢, 呂翁枕)

開元七年 道士有呂翁者 得神仙術.

개원칠년 도사유여옹자 득신선술.

개원(開元) 칠년, 신선(神仙)의 재주를 깨달은 여옹(呂翁)이라는 도사(道士)가 있었다.

行邯鄲道中 息邸舍 攝帽弛帶 隱囊而坐.

행한단도중 식저사 섭모이대 은낭이좌.

한단(邯鄲)으로 가는 도중에 여관에서 쉬며, 두건을 벗고 띠를 느슨히 하며 자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俄見旅中少年 乃盧生也.

아견여중소년 내노생야.

잠시 후, 손님 중에 소년을 보았는데, 노생(盧生)이었다.

衣短褐 乘青駒 將適於田.

의단갈 승청구 장적어전,

짧은 베옷을 입고 푸른빛의 망아지를 타고 있었으며 밭에 나가려 하고 있었는데,

亦止於邸中 與翁共席而坐 言笑殊暢.

역지어저중 여옹공석이좌 언소수창.

(노생도) 역시 여관 안에 머무르더니 여옹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유달리 통쾌하게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久之 盧生顧其衣裝敝褻 乃長嘆息曰.

구지 노생고기장폐설 내장탄식왈.

시간이 흐르고, 노생은 그의 해지고 더러운 옷을 돌아보더니 곧 길게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고 말하였다.

大丈夫生世不諧 困如是也.

대장부생세불해 곤여시아.

“대장부로 태어나 세상에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이와 같이 가난하게 사는구나.”

翁曰. 觀子形體 無苦無恙 談諧方適 而嘆其困者 何也.

옹왈. 관자형체 무고무양 담해방적 이탄기곤자 하야.

여옹이 말하였다. “자네의 생김새를 보니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으며, (지금까지 즐겁게) 함께 마주 앉아 어울려 이야기하였는데, 괴로운 것을 탄식하려 하니, 어찌된 것인가?”

生曰. 吾此苟生耳. 何適之謂.

생왈. 오차구생이. 하적지위.

노생이 말하였다. “저는 이처럼 구차하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翁曰. 此不謂適 而何謂適.

옹알. 차불위적 이하위적.

여옹이 말하였다. “이것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 즐기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答曰. 士之生世 當建功樹名 出將入相,

답알. 사지생세 당건공수명 출장입상,

(노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남자로 세상에 태어났으니 마땅히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고, 출장입상(出將入相)을 하고,

列鼎而食 選聲而聽,

열정이식 선성이청,

술을 진열하고 먹으며, 노래를 골라서 듣고,

使族益昌而家益肥 然後可以言適乎.

사족익창이가익비 연후가이언적호.

일가를 더욱 번성하고 집안은 더욱 넉넉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뒤에야 즐긴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吾嘗志於學 寓於游藝 自惟當年 青紫可拾.

오상지어학 우어유예 자유당년 청자가습.

저는 일찍이 배움이 뜻을 두어 허황된 재주에 의지하여 살았으며, 스스로 그 당시에는 청자(靑紫)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今已適壯 猶勤畎畝 非困而何.

금이적장 유근건무 비곤이하.

지금은 이미 젊음을 마주하였으나 오히려 산골짜기의 밭두렁에 힘쓰고 있으니,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言訖 而目昏思寐.

언홀 이목혼사매.

말을 마치자, 눈이 감기고 슬퍼하며 잠이 들었다.

- 中略(중략) -

盧生欠伸而悟.

노생흠신이오.

노생이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눈을 떴다.

見其身方僂於邸舍 呂翁坐其傍.

견기신방언어저사 여옹좌기방.

그의 몸이 여관에 바르게 눕혀 있는 것을 보았고, 여옹은 노생의 곁에 앉아 있었다.

主人蒸黍未熟 觸類如故.

주인증서미숙 촉류여고.

주인(主人)은 (노생이 잠들기 전에) 기장을 찢고 있었는데 아직 다 익지 않았으며, 닿는 것은 모두 예전과 같았다. (보이는 것 모두가 잠들기 전과 같다는 뜻.)

生蹶然而興曰. 豈其夢寐也.

생궤연이흥왈. 기기몽매야.

노생이 벌떡(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꿈을 꾸는 것인가?”

翁謂生曰. 人生之適 亦如是矣.

옹위생왈. 인생지적 역여시의.

여옹이 노생에게 말하였다. “인생의 즐거움 또한 이와 같도다.”

生憮然良久謝曰.

생무연양구사구.

노생이 실의에 빠져 그러하다고 하더니, 한참 뒤에 사례하며 말하였다.

夫寵辱之道 窮達之運 得喪之理 死生之情, 盡知之矣.

부총욕지도 궁달지운 득상지리 사생지정, 진지지의.

“저 총애와 수모의 근원, 빈궁과 영달의 움직임, 얻음과 잃음의 이치, 삶과 죽음의 정, 이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此先生所以窒吾欲也. 敢不受教. 稽首再拜而去.

차선생소이질오욕야. 감불수교. 계수재배이거.

이는 선생(先生)께서 저의 욕심을 멈추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감히 가르침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닿게 조아리며 절을 두 번 하고 떠나갔다.

## 2) 糟糠之妻 원문

弘當讌見,  
홍당연현,  
송홍(宋弘)이 (광무제(光武帝)가) 주관한 연회에 나타났는데,

御坐新施屏風 圖畫列女 帝數顧視之.  
어좌신시병풍 도화열녀 제수고시지.  
어좌(御坐)에 새로운 병풍(屏風)이 펼쳐 있었고, 여자들이 나란히 서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광무제는 자주 병풍을 둘러보았다.

弘正容言曰.  
홍정용언왈.  
송홍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말하였다.  
正容(정용): 正色(정색)하다. 몸가짐이나 안색을 바르게 하다. 용모를 바로잡다.

未見好德如好色者.  
미견호덕여호색자.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덕을 좋아하는 자를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帝即爲徹之 笑謂弘曰.  
제즉위철지 소위홍왈.  
광무제는 곧 병풍을 거두게 하고 웃으며 송홍에게 말하였다.

聞義則服 可乎.  
문의즉복 가호.  
“의로움을 듣고 바로 행하였으니, 잘 한 것인가?”

對曰. 陛下進德 臣不勝其喜.  
대왈. 폐하진덕 신불승기희.  
(송홍이) 대답하였다.

“폐하(陛下)께서 덕을 베푸는 것에 힘을 쓰시니, 신(臣)은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時帝姊湖陽公主新寡.  
시제자호양공주신과.  
당시 광무제의 손위 누이인 호양공주(湖陽公主)가 최근에 과부가 되었었다.  
● 新寡(신과): 최근에 과부가 되다. 최근에 과부가 된 여자.

帝與共論朝臣 微觀其意.

제여공론조신 미관기의.

황제는 자주 신하를 불러 함께 (호양공주의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였고, 호양공주의 뜻을 은밀히 살폈다.

主曰. 宋公威容德器 群臣莫及.

주왈. 송공위용덕기 군신막급.

공주가 말하였다. “송공(宋公)의 위용있는 모습(威容)과 덕행(德) 그리고 기량(器)은 여러 신하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帝曰. 方且圖之.

제왈. 방차도지.

광무제가 말하였다. “방법을 우선 세워보겠습니다.”

後弘被引見 帝令主坐屏風後 因謂弘曰.

후홍피인견 제령주좌병풍후 인위홍왈.

얼마 뒤 송흥을 부른 자리에서, 광무제는 호양공주를 병풍 뒤에 앉게 하고, 송흥에게 말하였다.

● 引見(인견):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 보다.

諺言 貴易交 富易妻 人情乎.

언언 귀역교 부역처 인정호.

“속담에 이르기를 신분이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고 하였다. 사람의 본성이 아니겠는가?”

弘曰. 臣聞 貧賤之知不可忘 糟糠之妻不下堂.

홍왈. 신문 빈천지지불가망 조강지처불하당.

송흥이 말하였다. “신이 듣기로는 가난하고 천할 때의 사귀는 벗어서는 아니되며, 지게미와 겨를 먹으며 함께 고생한 아내는 내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下堂(하당): ①아내가 버림을 받다. 친정으로 쫓겨가다. ②방이나 마루에서 뜰로 내려오다.

帝顧謂主曰. 事不諧矣.

제고위주왈. 사불해의.

광무제가 고개를 돌려 (병풍 뒤에 있는 누이인) 호양공주에게 말하였다. “(송흥에게) 시집 가는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겠군요.”

● 事(사): ①시집가다. 출가하다. ②직업. 일.

### 3) 朝三暮四 원문

宋有狙公者 愛狙 養之成群,

송유저공자 애저 양지성군,

송(宋)나라에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좋아하여 무리를 이를 정도로 사육하였으며,

能解狙之意 狙亦得公之心.

능해저지의 저역득공지심.

원숭이의 생각을 이해할 줄 알았으며, 원숭이들도 역시 저공의 마음을 고맙게 여겼다.

損其家口 充狙之欲.

손기가구 충저지욕.

그의 집안 식구들을 줄여가며 원숭이들의 욕심을 채워주었다.

俄而匱焉 將限其食.

아이궤언 장한기식.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을) 탕진(蕩盡)하여 원숭이들의 먹이를 제한하려 하였다.

恐眾狙之不馴於己也 先誑之曰.

공중저지불순어기야 선광지왈.

원숭이 떼가 자기를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먼저 원숭이들을 속이며 말하였다.

與若茅 朝三而暮四 足乎.

여약서 조삼이모사 족호.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를 주겠다. 만족하겠느냐?”

眾狙皆起而怒.

중저개기이노.

원숭이 떼가 다같이 일어나 화를 냈다.

俄而曰. 與若茅 朝四而暮三 足乎.

아이왈. 여약서 조사이모삼 족호.

잠시 후에 (다시) 말하였다.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는 네 개, 저녁에는 세 개를 주겠다. 만족하겠느냐?”

眾狙皆伏而喜.

중저개복이희.

원숭이 떼가 다 같이 인정하며 기뻐하였다.

物之以能鄙相籠 皆猶此也.

물지이능비상롱 개유차야.

물건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천한 사람을 이끌거나 농락(籠絡)함이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聖人以智籠群愚 亦猶狙公之以智籠衆狙也.

성인이지롱군우 역유저공지이지롱중저야.

성인(聖人)이 지혜로 어리석은 무리를 농락하는 것도 역시 저공이 지혜로 원숭이 떼를 농락한 것과 같다.

名實不虧 使其喜怒哉.

명실불휴 사기희노재.

명분(名分)과 실리(實利)를 잃지 않고 그들을 즐겁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하였다.

#### 4) 四勿箴 - 程正叔(程頤)

##### [視箴]

心兮本虛，應物無迹。操之有要，視爲之則。蔽交於前，其中則遷，制之於外，以安其內。克己復禮，久而誠矣。

마음이여 본래 허하니, 물건을 응함에 자취가 없다. 마음을 잡음에 요점이 있으니 보는 것이 법이 된다. 물건이 눈앞에 가리워 사귀면 마음에 옮겨가니, 밖에서 제재하여 안을 편안하게 하여야 한다.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가면, 오래되면 성실해(자연스럽게)질 것이다.

##### [聽箴]

人有秉彝，本乎天性，知誘物化，遂亡其正。卓彼先覺，知止有定。閑邪存誠，非禮勿聽。

사람이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병이)은 천성에 근본 하였지만 욕심의 지각이 물건 변화에 유인되어 마침내 올바름을 잃게 된다. 드높은 저 선각자들은 그칠 곳을 알아 안정함이 있다. 사악함을 막아 성실함을 간직하여 예가 아니면 듣지 않는다.

##### [言箴]

人心之動，因言以宣，發禁躁妄，內斯靜專。矧是樞機，興戎出好，吉凶榮辱，惟其所召。傷易則誕，傷煩則支，已肆物忤，出悖來違，非法不道，欽哉訓辭。

인심의 동함은 말로 인하여 베풀어지니, 말을 발할 때 조급하고 경망함을 금하여야 마음이 고요하고 전일하게 된다. 하물며 말은 중요한 추기여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좋음을 내기도 하니, 길흉 영욕이 오직 말이 부르는 바이다. 말을 쉽게 함에 상하면 미답지 못하고(허탄), 너무 번잡함에 상하면 지리 멀렬(지루하고)하고, 자기가 함부러 하면 남도 거스르고, 나가는 말이 거칠면 돌아오는 말도 도리에 어그러지니, 법이 아니면 말하지(道)말아 훈계의 말씀 공경히 받들지어다(흠).

##### [動箴]

哲人知幾，誠之於思，志士勵行，守之於爲，順理則裕，從欲惟危，造次克念，戰兢自持。習與性成，聖賢同歸。

철인은 기미를 알아 생각을 성실히 하고, 지사는 힘써 행동하여 하는 일에 그것을 지키니, 이치를 순히 따르면 여유가 있고, 욕심을 따르면 위태롭다. 조차(잠시)라도 능히 생각하여, 전전긍긍하여 스스로를 잡아라. 습관이 천성과 더불어 이루어지면, 성현과 함께 돌아가리라.